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VIEW

2011

7

Cover Story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적 세계관

Worldview Column

세계관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뽀로로를 통해 보는 유아인성 덕목
리터러시교육과 교회교육
교회란 무엇인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연회의 시작 - 엘타워

호텔 가격의 거품은 걸러내고 품격만을 남겼습니다

세계 일류 기업들의 선택으로 더욱 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엘타워에서 국내 최고의 연회를 경험하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닛산,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성공 비즈니스의 무대로 **엘타워**를 선택했습니다.



닛산 / 그랜드룸



마이크로소프트 / 그랜드룸



2010 SFAA 서울 컬렉션 / 그랜드룸



인텔 / 마리골드룸



- 10개의 대·중·소 연회홀을 갖추고 있어 패션쇼, 자동차 런칭쇼, 스페셜파티, 세미나, 국제회의 등 다양한 연회가 가능합니다.
- 특별하고 기품 있는 행사를 완성하는 EL Tower 연회 프리미엄을 느껴보십시오.

예약·문의 02-526-8600 ~ 4 | 양재역 7번출구 바로 앞 위치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VIEW

발행인

손봉호

편집인

김승옥

편집

차명실

기자

임지연

편집위원

강진구, 권성윤, 권오병, 김승태

김원수, 김정일, 김종락, 박동열

성백영, 이승구, 유해신, 장갑덕

최태연, 한윤식

자문위원

유진희, 정중모, 김도태

교정 자문

임춘택

자문봉사(녹취, 교정)

김하영, 김아리나

제작

한국학술정보

2011년 7월호

월간 WORLDVIEW 통권 133호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02-754-8004

E-mail

(사무국) info@worldview.or.kr

(학회)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facebook.com/cworldview



표지인물_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의 총리이며 신학자. 목사, 언론인이다. 그가 주장했던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는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CONTENTS 2011.7

COVER STORY

04 카이퍼의 기독교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 정성구

WORLDVIEW THEMA

08 세계관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신국원

11 뽀로로를 통해 보는 유아인성 덕목 방송미

14 미디어 시대, 미디어 세대를 듣다 신효영

WORLDVIEW CULTURE

20 말씀(Logos)으로 시대를 넘어서다 오익석

25 김명엽의 찬송교실 5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김명엽

WORLDVIEW COLUMN

26 전통이라는 이름의 폭력, 여성할례(2) 장유진

29 독일사에서 읽는 한국교회 1

오판에서 속죄로 돌아서라 추태화

32 교회개혁을 위한 단상 3

두 왕국 이론과 교회의 현실참여 김종락

36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의 교회와 정치 백승현

39 리터러시교육과 교회교육 임춘택

BOOK REVIEW

42 『교회란 무엇인가』(2) 이승구

WORLDVIEW NEWS

46 활동보고와 후원안내



상단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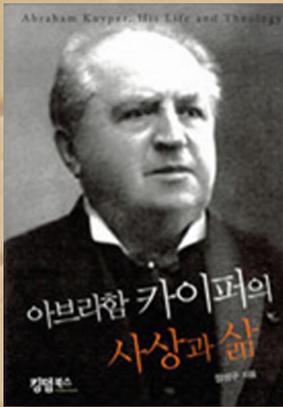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칼빈주의

기독교세계관의 사상적 체계를 이룬 아브라함 카이퍼

정성구



기독교세계관의 사상적 체계를 이룬 카이퍼

최근 한국 교회에서는 세계관이란 말이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세계관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 전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입장, 전제에 따라 역사와 세계와 인간의 모든 삶이 크게 달라진다. 유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영역의 일들을 유물주의 세계관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사고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삶의 전 분야에 인본주의적인 전제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런데 또 다른 세계관이 있는데, 성경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필요하다. 이런 성경적 세계관은 모든 진화론적 유물주의적,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잠재우고 역사와 인생을 하나님께로 바로 이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틀을 놓고 사상적 체계를 놓은 분이 바로 위대한 칼빈주의자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이다. 그러

므로 기독교 세계관은 달리 말해서 칼빈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카이퍼가 말하는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는 어떤 것인가? 카이퍼는 그의 모든 글에서 칼빈의 진실한 후계자로서 또는 칼빈 사상의 부흥가로서 자처했다. 하지만 화란의 신학자 힐케마(C.E. Hylkema)같은 이는 카이퍼를 신 칼빈주의자(Nieuw Calvinisme)로 칭했다. 그러면 카이퍼의 칼빈주의를 신칼빈주의(Neo-Calvinism)로 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카이퍼는 칼빈을 그의 멘토로서 철저히 따르며 그의 교리체계를 따르지만 카이퍼는 단순히 칼빈의 복사판(A Copyist of Calvin)이 아니고 칼빈의 사상체계 전부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더욱 발전 시키고 구체화 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의 사상 체계를 칼빈주의라고 하고 카이퍼의 사상을 신 칼빈주의라고 하나 그 둘 사이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 다만 칼빈이 일반은총에 대한 원리적인 것만 언급한데 비해서 카이퍼는 그것을 더욱 확장시키고 세심하게 다듬어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학문, 예술 등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한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카이퍼의 사상은 카이퍼 자신이 쓴 그대로 <칼빈주의>라고 쓰는 것이 옳다.

칼빈주의적 세계관

카이퍼가 칼빈주의를 말할 때, 기독교 세계관과 나란히 쓰고 있다.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세계관에는 두 가지 전제되어야 하는데, 첫째로 세계관이 되려면, 세

계관은 전 포괄적으로 모든 실제(Inclusive of all-embracing view of realities)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관은 하나님, 인간, 세계를 포괄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의 강북과 강남을 하나의 안목으로 보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적인 것에서 세상의 구체적인 구조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세계관은 그 판단 기준과 잣대가 처음과 나중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사물을 판단하거나 설명할 때 통일된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것은 이런 잣대로, 저런 것은 저런 원리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세계관 일수가 없을 것이다. 칼빈주의적 세계관이란 한 마디로 하나님을 만유와 만사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심판주란 확고한 하나님중심 사상으로 인생과 역사와 우주와 사회를 보는 시각이다. 그런데 이런 칼빈주의 세계관은 유물주의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과는 충돌이 일어 날수 밖에 없다. 그것을 카이퍼는 대립의 원리(Antithesis)라고 했다. 즉 중생자가 가지는 세계관과 비중생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사이는 어쩔 수 없는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즉 중생자와 비중생자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 하는데도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카이퍼는 그의 명저 「신학백과 사전학(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에서 두 종류의 인간과 두 종류의 학문(Tweeerlei Wetenschap)이 있다고 했다. 이런 주장은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4장 칼빈주의와 과학에서도 잘 나타났다. 카이퍼의 주장을 개요하면 이렇다. 중생자와 비중생자는 마음 또는 의식의 내용이 원리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중생자와 비중생자의 대립(Antithesis)은 신앙과 이성의 대립이 아니고, 중생자와 비중생자의 자기 의식의 대립이며, 세계관의 대립이라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자기 의식의 내용은 '죄의식', '신앙의 확신', '성령의 증거'에 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비중생자의 마음은 '어두워진 미련한 마음(롬1:21)', '굳어진 마음(엡4:8)'이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세계관으로 나누어 지게 되고 어떤 세계관을 갖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되어 있다.

앞서 말한대로 카이퍼는 두 종류의 인간, 두 종류의 자기 인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두 종류의 과학론을 주장했다. 그러니 꼭 같은 교육, 꼭 같은 연구 테마를 갖고 연구하는 두 과학자가 있다 해도, 한 사람은 창조주와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은 우상을 섬긴다면, 그 두 사람의 연구 방향과 목적이 달라질 것이다. 또 그런 판단에서 나온 논리적 결론도 그가 가진 세계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졌는가 아니면 인본주의적이고 유물주의적 세계관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카이퍼가 발행한 신문 Standard



일간지 Standard 40주년을 맞이한 카이퍼 포스터, 카이퍼의 멘토 칼빈(J. Calvin)과 흐룬 반 프린스터(Groen Van Princetere)가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카이퍼의 문화변증

카이퍼는 독자적으로 개혁주의 원리(Gereformeerde Beginsel)에 입각한 학문을 수립하려고 했다. 그는 기독교를 단순히 학문으로 보거나 과학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실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의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카이퍼의 세계관의 근저에는 비중생자가 만들어낸 문화를 중생자가 만드는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카이퍼의 문화변증(Cultural Apologetics)이라고 할 수 있다. 카이퍼의 관심은 불신 문화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방어하고 변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문화의 변증을 위해서 카이퍼는 두 분의 멘토에게서 배운 틀이 있었다. 즉 한 분은 16세기 요한 칼빈이었다. 또 다른 한 분은 흐룬 반 프린스터였다. 이들에게 배운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사상인 칼빈주의만이 복음적 기독교를 옹호하고 삶 전체를 변화시킬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인본주의 세계관과는 언제나 대립관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 하나님중심의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사이는 어쩔수 없는 투쟁이 있을수 밖에 없다. 그래서 카

이퍼는 성경만이 우리의 신학과 신앙과 삶의 기본이며 그 성경만이 우리의 사상과 가치의 기준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구속주의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삶의 다양한 구조인, 개인, 가정, 국가, 교회, 학교, 예술, 농업, 상업 등에 관여하신다는 사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혼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골2:10). 카이퍼의 사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시스템(System)의 변화가 필수이다. 그런데 그 체제는 곧 정치체제이다. 정치는 중립이 아니며 누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정치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역사가 굴러 갈 것인데 그리되면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래서 카이퍼는 이른바 정치적 영성(Political Spirituality)을 주장했다. 즉 정치적 영성이란 바로 신앙의 눈으로 정치 영역을 보는 태도이다. 즉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시각으로 본다. 혁명의 사상으로 새로운 세상

을 만들겠다는 불란서 혁명사상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역사의 배후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진리와 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 중심사상의 세계관이 중요하다.

칼빈주의적 세계관의 기본 틀

그러면 카이퍼의 칼빈주의적 세계관의 기본 틀은 무엇일까? 첫째로 그의 확신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이 기독교 진리를 가장 명료하게 나타낸다고 믿었다. 즉 카이퍼는 요한 칼빈으로부터 출발된 개혁주의 신학과 그 결과로 얻어진 돌트총회,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등에 정립된 신앙위에 확고히 섰다.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믿음은 특별은총 기구인 교회는 말할것도 없고 문화라는 일반은총의 영역까지 확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다. 하나님 주권은 교회는 말할것도 없고 삶의 전분야에 미친다는 생각이다. 특별히 정치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때 당시는 국가 지상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국가는 무엇이던지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에 젖어있었다. 그러나 카이퍼는 국가의 통치와 권위의 궁극적 원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확신했다. 국가는 일반은총의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기관일 따름이라고 했다.

셋째로 성경중심의 세계관이다. 성경만이 칼빈주의의 정경(Canon)이라는 사상이다. 성경의 원리는 신앙의 기본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영적인 생활에 표준

일 뿐 아니라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규범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가 그토록 일반은총과 문화 특히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것은 정권이 욕심이 아니고, 성경중심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영적인 것만이 돼서는 안되고 인생의 전 분야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확신 때문이다. 정치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양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예술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어떤 학문을 하던지 그 중심에 성경의 원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카이퍼의 입장이다.

넷째로, 교회 즉 특별은총은 모든 삶의 분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해야지만, 동시에 일반 은총인 국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롭게 증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는 정치의 지도자로서 이 둘의 조화와 상호협력을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바쳤다. 바로 이러한 틀에서 카이퍼는 1898년에 프린스턴대학에서 <칼빈주의의 강>을 하게 됐다. 그것은 평소 그의 사상을 명쾌하게 들어내고, 전 세계에 칼빈주의의 선언을 한 셈이고 카이퍼 사상의 진수를 개요 한 것이다. 즉 그의 칼빈주의의 강은 카이퍼적 칼빈주의 선언 (A Manifesto of Kuyperian Calvinism) 이었다.



정성규 건국대학교 영문학과(B. A),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Th. M.), 암스텔담 Vrije University(Drs. Theol.), Geneva Collage(D. Litt.), Debrecen Reformed University(D. D.), Whitefield Theological Seminary(Ph. D.)를 졸업하였다. 1985년에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을 세워 26년간 국제적 학술 교류와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 운동에 힘써 왔으며, 한국 칼빈학회 창립멤버로서 여러 해 동안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세계 칼빈학회, 국제개혁주의 신행협회, 세계개혁주의 대학연맹, 칼빈주의철학회, 국제복음주의협회 등에서 활동해 왔다. 총신대와 대신대 총장을 거쳐 현재, 총신대학교 명예 교수와 칼빈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다. 저서로 「실천신학개론」, 「칼빈주의 사상대계」, 「개혁주의 설교학」,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교회의 개혁자 요한 칼빈」, 「내가 만났던 100명의 개혁주의자들」 외 다수가 있다.

세계관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요셉의 삶을 통해 보는 세계관과 미디어의 역할

신국원



우리시대의 미디어

우리들은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다.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달'인데 전달은 단순히 사건을 줄여서 옮기는 것 뿐 만 아니라 전달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해석이 제대로 되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상당히 달라진다. 그러나 오늘날 미디어는 두 가지에 점령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은 엔터테인먼트와 비즈니스이다. 상업성과 오락성에 몰든 미디어는 제 기능을 잃거나 또는 아주 크게 왜곡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쉼(rest)인데 인간을 창조한 이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하신 일이었다. 그러므로 한 주일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삶의 조건을 확보하고 그 대가로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인간의 존재는 안식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다. 사실 인간에게 엔터테인먼트는 쾌락(pleasure)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상실된 현대인, 특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쉼은 죽도록 즐기는 쾌락의 문화이며 중독이다. 닐 포스트먼(Neil Postman)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으로 가는 길

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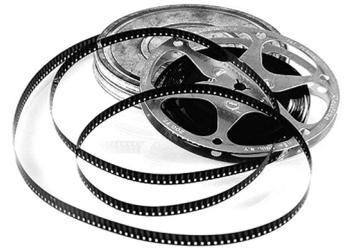
하지만 쾌락과 돈벌이로 타락한 미디어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처럼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귀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요셉의 메시지 해석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풀려 나온다. 그 당시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바로는 신적인 메시지가 느껴지는 꿈을 두 가지 연속으로 꾸고 고민에 빠진다. 추측컨대 바로는 꿈을 꾸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상징성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테스트하기 위해 궁에 있는 모든 학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 당시 왕의 보좌관들은 정치보좌관이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점성술사들이었다. 그들은 천문을 보며 일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 점성술사들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알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메시지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뿐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흉년과 풍년은 나일강과 태양신의 뜻이지 일기변화에 관한 이야기이거나 농업대책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사실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고
그 힘에 의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까지 달라진다.



는 세계관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신이 흉년을 주면,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석하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지 몰라 속으로는 당황했을 것이다. 그때 새로운 관점을 가진 요셉이 등장했다.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7년 간의 풍년과 7년 간의 흉년에 대한 꿈 해석을 듣고 속으로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도대체 새로운 것이 뭐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요셉의 놀라운 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해석하여 선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자, 풍년 때에 곡식을 축적해두면 흉년을 넘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그 당시 태양신을 섬기고 운명에 순응하여 살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었다. 인간은 관점이 바뀔 때 사실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고 그 힘에 의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까지 달라지는 것이다.

오늘날의 미디어 또한 사실을 전달 할 뿐 아니라 해석까지 한다. 미디어는 세상을 열어 보여주는 힘이 있으며 미디어 자체가 문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디어 분야에서 활동하

고 있지만 사회에 별다른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기독교 방송들도 성경적 진리에 제대로 서 있는 방송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기독교' 방송임을 주장하면서도 메시지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방법이 성경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기독교' 방송으로서 무의미한 일이다.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영을 예로 들면 기독교적 경영을 한다는 것이 업무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형식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디자인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관점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할 때 결과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또 다른 꿈의 해석

이러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놀라운 꿈이 있다. 요셉은 어린 시절 두 가지 꿈을 꿴다. 첫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는 형들의 곡식 단이 자신의 곡식 단에게 절을 하

는 내용이였다. 그는 이것을 자랑삼아 형제들과 부모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미움을 받게 된다. 어머니가 넷이며 이복형제들이 여럿이고 아버지의 편애로 형제간에 갈등이 심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요셉에게 이러한 행동은 다른 형제들의 질투심을 일으켰고 그로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만들었으며 결국 형제들에 의해서 이웃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결과는 낳았다. 아마도 그 당시 어리고 미성숙한 요셉의 관점에서 그 꿈은 모든 형제들을 제치고 자신이 가장 탁월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함으로 인하여 자만심을 갖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해석과 달리 상황은 정반대로 펼쳐졌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 상황이 나빠지더니 결국은 누명을 쓰고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이때 극적 반전이 일어난다. 바로의 꿈을 탁월하게 해몽함으로 갑자기 죄수에서 총리가 되는 요셉의 이야기는 세상의 밑바닥에서 신분이 수직상승하게 되는 이 부분이 클라이맥스라고 느껴진다. 그러나 성경의 스토리 전개는 우리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다. 이제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요셉의 위기는 형들에게서 팔려서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도 아니었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아니었으며,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되어 이름을 '사브넛바네아(네 속에서 말씀하신다)'라고 바꿀 때였다.

이름 바꾸는 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다.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 '므낱세'란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이었고, 둘째 '에브라임'은 '수고한 땅에서 내가 창성하겠다'라는 의미였다. 아마도 요셉은 어린 시절에 꾸었던 자신의 꿈을 되돌아보며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

으니 과거를 모두 잊고 여기서 잘 정착해 보겠다고 다짐한 듯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꿈을 깨우신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를 주었던 형제들이 나타난 것이다. 형제들을 보는 순간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꿰던 꿈을 떠올린다. 예전의 미성숙했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꿈을 해석하는 안목을 갖게 된 그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위로한다. 결국 그는 가정의 화해자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 한 부족이 한 국가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

파스칼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아 그가 어떤 분일지를 보여 주는 모델이 되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한다. 형제에게 팔리는 상황이 동일하며, 그 형제의 이름이 유다라는 것도 같고, 은전을 받고 팔리는 것도 같다. 그리고 옥에 들어간 이후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 편 강도에게 이야기를 각각 달리 하셨듯이 요셉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하면서 그들의 운명을 달리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해석하는 관점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빛을 따라서 미디어를 바로 쓸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미디어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디어를 해석하고, 문화를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5기 개강예배 설교문을 요약한 것이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 담당 교수이며 분당중앙교회 협동 목사이자 어버나 삼패인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교수.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있다.

뽀로로를 통해 보는 유아 인성덕목

*이 글은 2011년도 기독교학문학회 춘계학술대회 청년기독교학술발표논문상을 수상한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유아와 TV, 인터넷 접촉시간

오늘날의 유아들은 미디어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09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한국 인터넷 진흥원, 2009) 결과에 따르면 3~9세 어린이의 주중 TV시청 시간은 15.1시간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이며, 주중 인터넷 사용 시간은 8.7시간으로 하루 1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은 무려 6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유아의 TV와 인터넷 접촉 시간은 유아들이 유아교육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의 약 60%(5시간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 1964)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모든 미디어가 그 자체로 인간의 인식방식에 영향을 주며,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라는 것이다. 특히 유아기는 발달의 특성상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며, 모방이나 동일시 현상이 강하여 미디어가 주는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고 내면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

라 유아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시청하고 있는 TV는 유아의 사회화 및 인성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환경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영·유아들에게 선호도가 높고, 내용면에서도 유아의 사회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TV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가 담고있는 교육적 요소를 기독교적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뽀로로에 나타난 인성덕목 분석

TV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에 나타난 인성교육 덕목을 분석하고, 이를 기독교적 인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 하기 위해 에피소드 78편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인성교육 덕목을 선별하여, 12가지의 덕목을 분석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인성교육 덕목은 친절, 질서, 예절, 절제, 타인이해 및 존중, 협동, 자기(감정)조절, 양보, 자아존중, 규범준수, 정직, 책임이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뽕뽕뽕 뽕뽕”에 나타난 전반적인 유아 인성교육 덕목

| 내용구분 | 인성덕목 | 빈도(%) | 합 |
|----------|-----------|----------|----------|
| 기본생활습관 | 예절 | 21(13.6) | 37(24.0) |
| | 절제 | 11(7.7) | |
| | 청결 | 3(2) | |
| | 질서 | 2(1.3) | |
| 사회 정서 덕목 | 타인이해 및 존중 | 42(27.3) | 97(63.0) |
| | 협동 | 23(15) | |
| | 자기조절 | 18(11.7) | |
| | 자아존중 | 7(4.6) | |
| | 양보 | 7(4.6) | |
| 윤리 도덕 덕목 | 정직 | 11(7.1) | 20(13) |
| | 책임 | 5(3.3) | |
| | 규범준수 | 4(2.6) | |
| 합 | | 154(100) | 154(100) |

사회, 정서적 인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한 뽕뽕

첫째, ‘뽕뽕뽕 뽕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나타난 유아 인성교육 덕목들은 사회·정서와 관련된 덕목들이며, 윤리·도덕적 덕목들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뽕뽕뽕 뽕뽕’에서 사회·정서와 관련된 덕목들은 전체에서 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윤리·도덕적 덕목들은 13%로 사회·정서와 관련된 덕목들에 비교해 현저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작품이 유아에게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인성덕목들은 주로 사회·정서적 측면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유아가 기본적으로 알고 따르며, 지켜야 하는 윤리적, 도덕적 덕목들은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한 오늘날의 포스트모던적인 세계관 아래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윤리, 도덕의 위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탠리(Stanley, 2004)는 성경적 성품을 ‘일신상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의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라고 말하며,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인성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윤리·도덕적 덕목들 중 ‘규

“뽕뽕뽕 뽕뽕”에 나타난 전반적인 유아 인성교육 덕목

| 순위 | 인성덕목 | 빈도(%) |
|----|-----------|----------|
| 1 | 타인이해 및 존중 | 42(27.3) |
| 2 | 협동 | 23(15) |
| 3 | 예절 | 21(13.6) |
| 4 | 자기조절 | 18(11.7) |
| 5 | 정직 | 11(7.1) |
| | 절제 | 11(7.1) |
| 7 | 양보 | 7(4.6) |
| | 자아존중 | 7(4.6) |
| 9 | 책임 | 5(3.3) |
| 10 | 규범준수 | 4(2.6) |
| 11 | 청결 | 3(2) |
| 12 | 질서 | 2(1.3) |
| 합 | | 154(100) |

범준수’가 겨우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음과 그를 따라야 하는 것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드러나며, 이는 성경적인 인성의 측면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적 가치관의 뽕뽕

둘째, ‘뽕뽕뽕 뽕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개별적인 유아 인성교육 덕목은 ‘타인 존중 및 이해’이며, 이는 성경적 성품에서 중시되는 이웃사랑이 잘 나타난 것과 동시에 이 작품이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가치를 함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제시되는 성경적 인성 중, 사랑과 화평과 자비의 덕목과 비슷한 덕목으로 일반적인 인성교육 덕목과 성경적 인성덕목 모두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성경적 인성에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함께 수반되지만 일반적 인성교육 덕목에서는 이웃, 즉 타인에게만 그 사랑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타인 존중 및 이해’ 덕목은 다른 어떤 인성교육 덕목보다도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는 상

이 작품은 유아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인성덕목을 주로 사회·정서적 측면으로 규정한 반면 윤리·도덕적 덕목들은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포스트모던적인 세계관 아래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윤리, 도덕의 위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황에서 각자의 입장과 판단에 따라 옳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치관 아래 있는 사회에서 서로의 상대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강조될 수밖에 없는 덕목인 것이다. 그러나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윤리교육은 상황윤리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기 위해 그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 따라서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성교육의 덕목이 된다. 그러나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없이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과 이해는 상황윤리를 만들어내며 혼란과 혼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아가 하나님 안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인성덕목을 균형있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

셋째, ‘뽀롱뽀롱 뽀로로’에 나타난 인성교육 덕목들은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특별히 시즌 1,2,3으로 진행 될 수록 몇 가지 덕목들만 다루어

지고 있어, 앞으로 제작될 시즌에서는 좀 더 균형적으로 모든 인성교육 덕목들이 다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TV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에 나타난 유아 인성교육 덕목을 분석해 본 결과, 이 프로그램에 나타난 인성교육 덕목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포스트모던 사회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음과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인성교육의 덕목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별히 성경이 강조하는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수 있는 태도인 규범 준수나 순종, 인내 등과 같은 덕목은 이 프로그램에서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스도인 부모와 교사들은 유념해야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 부모들과 교사들은 유아들의 인성 및 인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미디어가 되지 않도록, 유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환경에서 흥미 있게 배우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따를 수 있는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디어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부모와 교사, 자녀 모두가 훈련하고 기를 수 있도록 해야하며, 성경적인 가치를 담은 양질의 기독교 매체들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방승미 총신대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으로 2011년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TV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에 나타난 유아 인성교육 덕목의 성경적 분석'이라는 논문주제로 청년기독교학술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

미디어 시대, 미디어 세대를 듣다

음악전문케이블방송(MTV)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신호영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 소리에 까르르 웃어 재끼던 소녀들이 있었더랬다. 수줍어 말도 못하던, 괜한 앞코만 댄던 신발도 있었더랬다. 얼마 전 우리시대의 청소년 문화를 재조명하듯 소녀들의 수다를 가득 적어놓은 빛바랜 일기처럼 어설플 짜구려 향수내음 풀풀 풍기는 영화가 하나 개봉했다. 그 향수를 지닌 이들은 즐거이 공감했다.

지금의 청소년은 어떤 문화를 추억하게 될까? 소리 내어 불러보지만 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저 들리기보다 '보이는' 문화에 익숙한 현시대의 청소년은 말소리 보다 기계음에, 나지막한 심장박동보다는 달팽이관의 진동소리에 더 민감하다. 그들의 웃음은 사람 보다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디어에 더 익숙하며 미디어가 없는 그들의 대화는 존재하기 힘들다. 미디어media의 단수는 medium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medius, between을 의미하는 라틴어다. 사이에 끼인 무엇이다. '인간(人間)'이란 말에 있는 간(間)도 '사이'다. 사람 사이에 끼인 무언가가 우리의 문화를 전달하기도, 만들어도, 이끌어도 가며 그네들의 독특한 속성으로 의미를 재구성, 창조하여 전파하기도 한다. 끼인 무언은 존재 이상의 모습으로 왜곡을 넘어 대체하기

까지 하는 오만함을 지닌다. 그것이 이제 우리 문화의 핵이 되고 있다.

미디어, 청소년과 함께 자라다

특히 청소년문화는 대중음악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라는 입시중심의 풍토 속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청각에 의존한 대중음악이다. 청소년은 대중음악으로 고민을 풀어내고 대중스타를 동경하며 그들의 life-style을 지향점으로 삼는다. 경제적인 부요와 기술발달로 새로운 여가가 창출되며 여가를 소비할 능을 지닌 청소년은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자가 되어 대중가요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다. 그들은 음악을 통해 자유를 만끽하며 갖은 스트레스와 욕구를 해소한다. 육체적인 참여를 통해 그들의 방식으로 소통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침취하여 도피하기도 한다. 모방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특정가수를 따라하며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또래집단의 소속감을 강화하기도 하며 자신의 기호를 표현하기도 한다.

청소년이 즐기는 대중문화의 기반인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음악전문케이블방송은 청소년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70년대부터 대중음악의 부

MTV는 음악적 요소와 떠도는 기표들이 범람하는 매체이며 광고주, 음반. 방송사의 마케팅을 위해 편집된 이미지와 환상, 고도의 전략을 지닌 매체이다.



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음반산업이 찾은 돌파구는 광범위하고 포괄적 매체인 TV의 형식이다. 버진 레코드의 사장의 “우리는 구세주를 찾아 헤맸는데, 그것은 MTV(음악전문케이블방송)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등장했다”는 말처럼 MTV의 시작은 대중음악의 신세계였다. 1990년대 이후 라디오, 워크맨의 매체를 기반으로 한 청각의 시대에서 시청각, 멀티(multi)의 시대로 시각의 확장은 기술이라는 전능한 신화의 힘을 빌려 끊임없는 뉴미디어의 진화를 거듭한다. 이제 무소부재한 유비쿼터스의 시대에 ‘언제, 어디서나’ 동행한다. 청소년문화의 거점인 MTV는 확장된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미디어와 성장한 세대들의 절친한 동반자로 성장한다.

의미 없는 그럴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수많은 이미지들로 구성된 서사구조를 지닌 뮤직비디오 중심의 MTV는 포스트모던적 매체라 불리며 서사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어떤 지식을 주기보다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청각의 시각화에 의한 끝없는 무드(mood)의 매체였다. 뮤직비디오만으로 송출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개체 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광고편성과 편집이 점차 이미지 중심의 매체에 다양한 기획과 제작, 편성

의 과정을 거친 엔터테인먼트와 결합한다. MTV는 음악적 요소와 떠도는 기표들이 범람하는 매체에 기획, 편성, 제작 하에 광고주, 음반. 방송사의 마케팅의 장인 미디어이다. 의도를 가진 편집된 이미지와 환상, 고도의 전략을 지닌 매체이다.

미디어, 청소년에게 말하다

이런 MTV를 중심으로 형성된 청소년문화,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능에 따른 여러 영향을 갖고 있다. 대중문화를 긍정하는 이론가들은 대중은 결코 분별력을 결여한 무리가 아니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중문화를 선별하여 수용, 활용할 줄 아는 주체로 본다. 또한 이를 비판하는 이들이 미디어의 힘을 지나치게 강조하였으며, 주장하는 내용 또한 어떤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것이 없다고 보았다. 비판의식으로 인해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순기능마저 간과한다고 보았다.

대중문화는 교화와 연예의 양면의 기능을 지녀 문화를 전수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보존하며 사회를 비평하게도 하는 세계투영행위로서의 교육적 기능을 가진다. 또한 TV라는 다각도의 매체 특성상 세계 곳곳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미지들을 전달하여 사회화, 문화화하며 특별히 대중가요는 다양한 계층과 교육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동경하는 세계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와 자아실현의 도전을 촉구하여 아직은 경험치 못한 세계의 맛보기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문화가 대중문화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중심문화가 쾌락지향적, 유희지향적, 소비지향적인 문화의 영향을 배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대중문화를 조종하는 것은 자본이며 지금은 어떤 정신이 중심이 아닌 자본이 물질을 넘어 정신도 지배하는 물질만능주의 'ism'의 시대로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는 공용의 매체인 TV를 통해 유포되는 상업지향적인 소비문화라는 점이다. 미디어는 환산된 물질가치를 비판하기보다 모두가 동조할 수 있는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스타일, 표상, 소비, 정체성을 '상식'으로 정착, 물질 중심의 허구를 조장한다. 스타일과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재미, 쾌락 그리고 욕망만을 쫓게 되며 물질만능의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소비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자신의 정체성을 소비로 얻고자 한다. 분별력 없이 획일화된 패러다임을 지닌 청소년들은 대량생산된 소비 중심의 통일된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통해 방관, 맹신의 두 형태의 반응을 보인다. 청소년시기의 특징인 '모방'이

그들이 즐겨 접촉하는 미디어의 주체와 맞물려 무작정 따라한다. 미디어의 주체에는 편집된 아이돌의 일상과 상대적인 가치관에 기인한 행위가 있다.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노출된 반복적인 대량생산된 행위에 시시비비를 떠나 끊임없는 문지방 체험으로 내성을 형성, 재미있다는 맹목적인 청소년들만의 동조를 바탕으로 유대감을 형성한다. 편집되어 반복된 이미지에 익숙해져 실제 노동이나 가족과 같이 살아있는 진정한 리얼리티의 다른 요소들은 무시가 되며 미디어를 통해 수용한 유사환경들로 인해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정리하자면 MTV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파편화된 이미지와 물질 중심의 상업성을 수용자에게 소비하게 함으로 미디어의 정체성과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투영해 왔다. MTV는 현재까지 변함없이 청소년 수용자를 목표로 하는 문화적·상업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드러난 여러 청소년문화로 비롯된 사건들을 볼 때, 현 MTV는 순기능보다 역기능과 파급력이 강력하며 미디어의 순기능이 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미디어 시대, 이미 그리고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 미디어의 기능과 영향에 있어 지양해야 하는 태도는 먼저 아직은 거듭 진화하는 과정에 있는 진

매체 이용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미디어를 시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화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상업논리에 노출된 위험성을 분별할 줄 알고, 비판적인 안목을 키워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 감상 교육도 가능하다.

행형의 매체에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솔함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보고 미디어의 표면적 의미만을 분별하는 경솔함도 지양해야 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등을 돌리고 무시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으며, 온갖 세속적이고 나쁜 것, 틀린 것의 이분의 태도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직한 답변은 양분하여 이해하는 데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이미 왔으나 아직 기다려야 할' 완전한 소망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먼지와 같으나 이 먼지도 빛을 받아 영광 돌릴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중문화를 흥미와 재미를 넘어서 여가의 무비판적 소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기독교적 시각으로 대치하고 바꾸어 쓰기 위해, 적절한 자신감과 예의로, 감수성과 배려를 갖춘 참여성 반성의 움직임으로 노력해야 한다.

미디어 시대, 이제 미디어 세대를 듣다

먼저 일과 안식에 대한 가치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인생에게 주신 선한 선물들을 통해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기억하며 왜곡된 시대의 보편가치들을 넘어 인간 본연의 모습을 상기하며 하나님을 추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배척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가 미디어에 대한 미디어 사용에 적절한 향유의 기준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원래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

다. 이 마음가짐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가정과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때이다. 청소년문제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가정에 있다. 청소년문제의 시작은 청소년 본인 이전에, 청소년과의 문제에 대처하는 어른들의 미숙함에 있다. 우선 어른들은 지각해야 한다. 결코 소비가 개인과 집단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손쉬운 방법의 해결방법으로 갖고 온 것을 가질 능력을 쉽게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문제 행동에 대해 어른으로서 고압적 자세로 지적하는 방법을 버려야 한다. 청소년만 무례한 것이 아니다. 청소년의 외향이 다른 어른과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직 교육받으며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숙한 판단과 대처가 당연한 청소년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떠나 무례하지 않는 이해의 자세로, 물질적 소비가 아닌 질적인 시간을 소비하는 저기술의 커뮤니케이션, 듣고 말하고 공감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매체 이용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미디어를 소화하는 체계적인 영상매체교육이 필요하다. 질적인 시간을 소비하는 저기술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함께'의 교육은 미디어를 같이 시청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소화하기까지의 교육이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상업논리에 노출된 위험성을 분별할 줄 아는 세계관 교육의 지평을 열고,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키워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 감상 교육도 가

능하다. 교육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저기술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심미적·윤리적·정치 사회적 비평도 가능하며,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질적인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이로서 능동적인 주체자로서의 문화 관람객에서, 직접 제작하여 그 속에 상상력과 창조적인 주체자로서의 문화생산자의 주체성까지 얻을 수 있다.

가정과 개인의 반성에도 학교와 사회를 변혁하는데에는 미디어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큰 영향력을 지닌다. 현실적으로 미디어가 순기능보다 역기능과 문제점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자체의 구조적인 조정과 프로그램의 개선 없이는 아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경쟁적인 상업주의와 향락주의, 가치관 전도를 조장하는 프로그램, 인기에 편승한 운영 등은 청소년의 성적·공격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의 모방심리를 강화하며 환상적인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촉진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대중매체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발상이 절실히 필요하다. 선도적·교육적 책임을 인식, 형식적으로나마 전체 프로그램 내에 일정 비율을 청소년들의 문화를 재정비할 수 있는 바른 프로그램 방영으로 매체의 정화기능을 감당하는 것을 권고하며 공적 매체로서의 인식과 자기 반성적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매체의 편성과 기획, 제작에 개입하는 상업성

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주체의식을 갖고, 대중의 '선택'하는 권한으로 소비자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광고에 개입하는 광고주, 기업에 책임투자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소비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또한 우리의 몫이다. 기업 스스로가 자본도 모으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치 있는 투자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소명이다. 무조건적 비판이나 승리주의 방식의 죽이기는 지양하며 물질 만능적인 광고와 프로그램에 대해 이론과 지성을 토대로 하여 비평, 격려함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벧전 3:15)'을 지닌 예의 있는 시민운동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만든 문화 또한 하나님의 것이며 세상 모든 것을 주님께로 회복해 나아가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 따라 흥미와 재미에 몰두한 청소년들의 무비판적 여가 소비를 기독교적 시각으로 대치하여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한다. 현대와 같은 격변의 시대에 늘 깨어 자성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32)'의 말씀을 기억하며 청소년들을 시비를 가리기조차 어려운 급변하는 문화의 흐름 속에서 늘 깨어있도록 꾸준히 말씀으로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원고는 2009학년도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음악 전문케이블방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 것이다.



신효영 총신대 교육대학원 기독교문화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아가페출판사 편집부 디자인팀과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연구원을 거쳐 현재 총신대 학생지원센터 간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중기과정 5기에서 다양한 미디어 교육과 시사문화QT를 통하여 미디어 제작활동을 하고 있다.

SAMSUNG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Tab하게
될 것이다!

슈퍼미디어 GALAXY Tab

읽고 보고 듣고 찾고 통화한다 Life is Tab! Tab! Tab!

- e-Reading 8만권의 도서, 8종의 신문/잡지, 100여종의 만화, 연구보고서, 전문지를 Tab 하다
- e-Learning 전자사전, 유명강사의 동영상 강의, 교과서를 Tab 하다
- Multimedia 카메라, 지상파 DMB, VOD서비스, 3D게임을 Tab 하다
- Utility 아이나비 3D 내비게이션, 디지털 액자, 여행가이드북을 Tab 하다
- Smart work 탭만의 음성/영상통화, 문서 수정, PC처럼 인터넷을 Tab 하다

QR코드로 즐기는,
“컬투와 함께하는 탭택시”

www.tabtaxi.com에서 18개의 탭택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Samsung
Anycall



광야와 빛의 화가 최상현

말씀(Logos)으로 시대를 넘어서다

🕒 오의석

대구 동촌의 도심을 벗어난 외곽, 공군 비행장의 시멘트 블록 담장을 한참 돌아서 팔공산 자락 명당마을이라는 이름의 동네 가운데 화가 최상현의 새 작업실이 있었다. 작업실은 그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본가의 축사를 개조한 공간으로 소박하고 따뜻했다. 수장고의 진열대에는 최근의 대작들이 층층마다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작가가 조심스레 보여준 작업장 뒤편 허름한 건물에서는 몇 트럭 분량의 옛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그 엄청난 작업의 양에서 최상현이 타고난 화가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1995년 '광야'의 연작으로 첫 개인전을 가진 이후, 최상현은 작년까지 열한 번의 국내외 개인전을 열었다. 그의 전시는 지역을 넘어서서 서울의 우수한 화랑과 미술관의 초대로 이루어져 왔다. 그는 비중 있는 공모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었고, 2006년에는 이인성 미술상 청년작가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최상현이 작가로서 갖춘 내외적 성취는 늘 세인들의 주목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통과한 광야의 여정과 새롭게 눈뜬 '빛'에 대한 조형적 탐색이 얼마나 힘겨운 작업인지를 살펴볼지 않을 수 없다.



최상현

1969 대구 출생,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육대학원 졸업. 국내외 개인전 12회(대구문화예술회관, 금호미술관, 가나아트 스페이스, 학교재, 인터불고갤러리 등)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신조미술대상전 대상, 창작미술협회 공모전 금상, 제6회 이인성미술상 청년작가상(2006) 수상

‘광야에서 ‘빛’으로

최상현을 오랫동안 ‘광야’의 작가로 기억해 왔다. 지금도 그의 작품 ‘광야’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 광야의 연작들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청년기를 보내었는지를 말해 준다. 한 프랑스의 미술평론가는 ‘물감의 파편들’이란 제목의 평문에서 그 광야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만약 빛의 세계의 혼돈에서 솟아오르는 작가들이 있다면 최상현은 분명히 그들 중에 한 명임이 분명하다. 삶과 감정의 격동은 그의 작품의 기관 속에 흐르고 있다. 마치 동·식물의 혹은 인간들의 혈액과도 같이, 작가는 작품 속에서 핏빛 같은 번득임, 석탄의 광맥, 밀도 높은 농도, 유연히 흘러내리는 먹의 얇은 흐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무리엘 까르보넬트, 파리개인전 평문, 1997년).”



Light Colors, 직경 120cm, 캔버스에 아크릴



Light Red, 캔버스에아크릴, 2007년 제작, 55x176cmx12개

광야는 모든 인생들이 거쳐 가는 곳이다. 청년 예술가들은 스스로 광야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며 그곳에 자신의 몸을 던진다. 최상현에게 광야는 어디였을까? 일찍이 믿음을 가진 청년작가로서 미술계의 작업 현장은 곧 광야였고, 그곳에서 견디며 살아남는 일이 광야의 체험이 아니었을까? 그는 작업의 주제로 선택한 광야를 10년 넘게 붙들고 있었다. 그러나 끝이 있었고, 결국 그는 ‘빛’을 만난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 1:3)’ 이처럼 빛은 창조주의 말씀으로 있게 되었다. 빛은 모든 창조 작업의 근원이다. 빛이 없다면 형태와 색채는 인식될 수 없다. 물론 표현과 감상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술의 역사는 빛과 깊은 관련을 맺어왔고 지금도 빛은 작업의 중심 주제 중 하나이다.

최상현의 ‘빛’ 작품을 처음 접한 것은 2004년 갤러리 예술사랑의 초대전시에서였다. 놀라운 변모였다. 광

야의 걱정과 열기가 차분히 가라앉고 질서와 절제, 조용한 울림이 있었다. 단색조의 정사각 평면들이 격자로 반복 구성된 화면 위에 선묘의 흔적을 따라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은 그 빛을 은은히 반사하고 있었는데 감상자의 위치와 움직임에 따라 화면 위에는 변화가 일고 있었다.

최상현은 빛을 그리지 않는다. 빛을 화면 위에 담아낸다. 그의 고안은 특별하다. 아크릴물감에 광택을 더하기 펄(pearl)을 혼합하여 사용하는가 하면, 방향을 달리하는 반복된 묘법에 의해 질감의 효과를 살린다. 그는 나이프를 사용한 스크래치(scratch)의 방법으로 화면에 질감의 깊이를 더하여 빛의 반응을 보다 강화시킨다. 스크래치 된 각 면의 깊이와 방향에 따라서 동일한 색상이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이처럼 그의 작품은 감상자의 움직임과 빛의 개입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Light Red, 캔버스에아크릴, 2007년 제작, 55x176cmx12개

말씀으로 시대를 넘어서기

최상현은 현대조형의 양식을 존중하며 즐겨왔다. 그리고 미술계는 현대의 양식과 화해를 이루고 있는 그의 작업을 주목해왔다. ‘광야’의 연작에 나타난 열기는 뜨거운 추상이라고 불리는 추상표현주의 범주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빛’의 연작들은 미니멀(minimal), 모노톤(mono-tone), 광선예술(light art)과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양식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업은 현대와 구별된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조형의 양식들은 말씀에 대한 고백적인 진솔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작업을 구별하는 키워드는 광야와 빛이라는 작업의 주제이다. 그것은 작가가 말씀에 대해 반응한 결과로 나타난 작업들이다. 최근의 작품에서 작가는 붉은색의 점이적 화면 12개로 하나의 작품을 구성한다. 원형으로 방사되는 ‘빛’ 작품의 중심축에는 교차하는 십자형이 자리한다. 그가 즐겨 선택하고 있는 청색과 적색, 자색은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의 의복색과 무관치 않으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보라색, 죄와 순결을 상징하는 흑색과 백색의 사용도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처럼 그의 형상 이미지는 궁극적인 지향이 말씀임을 보여준다.

최상현의 작품 ‘광야’와 ‘빛’은 말씀에 대한 조형적 묵상이고 기록이다. 그의 작업은 형태를 통한 말씀의 탐구이며 형상을 통해 말씀에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다. 그의 현대적인 작업은 시대와 소통하는 방식이기에 앞서서 먼저 그분의 말씀을 경험하고 형상을 통해 말씀과 소통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의 추상이미지인 ‘광야’와 ‘빛’의 진원지는 곧 말씀이며, 그 형상이 목표하는 곳 또한 말씀이다. ‘광야’에서 ‘빛’으로, 최상현은 형상을 통해 말씀에 다가서기를 시도한다. 그 결과 시대의 미술정신을 이기고 넘어선다. 우리는 그의 작업에서 말씀이 역사하여 빛은 오늘의 이미지를 만난다.



오익석 조각가, 서울대 미대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나와 대구가톨릭대 조형예술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대학 MF 지도 교수로도 활동중이다. 개인전 8회(서울, 대구, 부산, 횡트웨이인, 연길), 메사이어대학 초대 조각 2인전(2004), IFA 미술전 참가(중국 곤명, 1999), 광주비엔날레 특별전(2000), 대구미술의 오늘전(2004) 등에 출품했다. 저서로는 『기독교와 미술(공저)』, 논문으로는 ‘성경적 조형관’, ‘현대기독교 미술과 세계관’, ‘부활의 조형’ 등이 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송가 580장)

무궁화 꽃을 심으며 울려 퍼진 나라사랑 노래

강원도 흥천군 서면 모곡리에 가면 일제 강점 시 나라사랑을 실친 한서(翰西) 남궁억(南宮 億, 1863-1939) 선생의 묘소와 함께 기념 예배당이 서 있다. 한서교회엔 한옥의 예배당이 복원되어 있는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다. “1919년 9월 한서 남궁억 선생께서 이곳에 예배당을 지으시고 ‘모곡학교’를 설립하여 ‘무궁화 운동’을 전개하셨다. 1933년 11월 ‘무궁화 사건’으로 선생께서 구속되시고,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뜯겨 폐교된 것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 것이다.”

서울 출신인 남궁억선생은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고종황제의 통역관과 전권 대사의 통역관으로 일하였고, 해외 순방을 통해 서양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개화에 힘썼다. 1895년 내부(內部) 토목국장 재직 시엔 주택개량과 서울 종로거리의 확장 정리하기도 하였는데 지금의 탑골공원은 바로 그가 건립한 것이다.

1896년, 독립협회를 조직한 독립 운동가이며, 1898년엔 ‘황성신문’을 설립한 언론인으로서 일제 침략 야욕을 폭로하고 나라의 독립과 자존의 민족운동에 힘썼다. 그는 흥화학교, 현산학교, 배화학당, 상동청년학원의 교사를 지낸 교육자로서 국어, 국사 교과서를 저술하여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소명을 일깨운 애국자이다.

1918년, 병약하여 모곡(牟谷)에 내려가 요양하면서도 교회와 모곡학교를 세웠는데 이곳에서 ‘무궁화동산 꾸미기운동’을 벌여 암울한 일제하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민족혼을 일깨운 계몽가이기도 하다. 그는 이곳에서 1921년, 노고산과 수산이 흥천강과 어우러진 강산을 바라보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무궁화심기운동과 함께 부른 이 찬송은 삼시간에 전국을 휩쓰는 히트곡이 되었고 이에 당황한 일제는 1937년 드디어 전국적으로 이 찬송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고 우리의 국화인 무궁화까지 모조리 뽑아 버렸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는 차디찬 겨울, 일제 치하에서도 “봄 돌아와 발 갈때니”라 노래하며 장차 맞이할 해방을 그렸고, “곡식 익어 거둘 때니”하며 이 땅에 이루어질 번영된 조국을 내다보았다.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인 도니제티(G. Donizetti, 1797-1848)의 오페라 ‘루치아’(Lucia di Lammermore) 중 2막에 나오는 힘차고 경쾌한 합창이 남궁억 선생의 시와 만나 우리국민에게 더욱 애국심을 꽃게 한다. ‘삼천리 반도’에서 ‘솔도미술’하며 조악진행하는 음형(音形)은 잠자는 민족을 깨우는 기상나팔소리이며, “하나님 명령”에서 ‘도미술도’는 그 옛날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소리로 들린다. 바로 이 소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트럼펫 소리로 들려오길 바란다.



김명엽

연세대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역임
현)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현) 서울바하합창단 지휘자
현) 남대문교회 시온찬양대 지휘자



하루에 6000여명,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3천만 명이 받은 여성할례

전통이라는 이름의 폭력, 여성할례(2)

장유진

거리로 뛰쳐나온 소녀들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 만난 안마리(가명, 16세). 그녀는 할례가 무서워 도시로 도망을 쳤다. 얼마 전 안마리는 어머니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되기 위해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마을로부터 도망쳐 나와 프리타운으로 숨어들었다. “면도 칼을 이용할 때 멈출 수 없이 피가 아주 많이 난다고 했는데 이를 견딜 힘이 없다면 생명을 잃을 것이라 어머니 말씀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녀는 혹시나 가족들이 찾아올까봐 불안하다고 했다.

최근 프리타운엔 안마리처럼 할례를 피해 도망쳐 온 소녀들이 늘고 있다.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눈을 피해 도시로 숨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성할례를 누구도 쉽게 비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비판을 하면 비판하는 자의 가족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에라리온에서 여성할례가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이유다. 정치가는 물론 어느 누구도 이것을 공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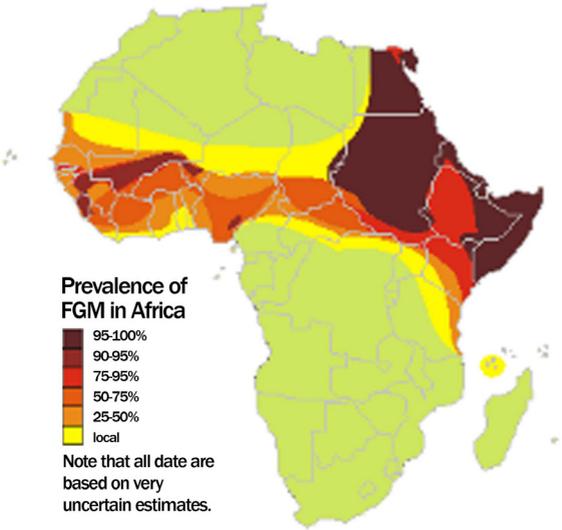
으로 반대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인권 보호 단체들 사이에서도 여성할례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반응한다. 시에라리온 인권 단체들의 주 관심은 10년 간의 내전으로 무너진 국가의 재건에 맞추어져있고 할례의 폐해에는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이 나라 여성의 90% 이상이 이미 할례를 받았고 이것을 중요한 관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는 다른 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할례를 반대하는 인권단체

아프리카 인권위원회소속으로 30년째 할례 반대운동의 중심에 서고 있는 올라잉카씨와 루기아투 투레씨. 그녀들은 시에라리온에 이 여성할례에 관한 침묵을 깰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루기아투 투레씨는 공개적으로 여성할례에 반대해온 이 사회 구성원 중 유일한 사람이다. 소녀들에 대한 할례를 멈추기 위해 그녀 혼자 100여 개가 넘는 마을에서 온 400여 명의 할례 집도인들을 교육시켰다. 루기아투가



할레반대 여성인권운동가 올라잉카 코사와 할레금지 포스터



아프리카의 할레국가 분포도

가르치는 많은 여자아이들은 10살 내외로 이들은 이미 할레 집도인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었다. 몇 년 후면 이 여자 아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른 여자아이들을 자르는 칼을 손에 쥐게 된다.

이 아이들이 생계를 할레집도에 의존하는 한 여성 할레는 계속될 것이고 이들에게 생계를 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여성할레를 멈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에라리온 외에도 이디오피아의 동부 지역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할레는 인퍼뷰레이션(infibulations, 음부봉쇄)으로 이는 세계 모든 할레 기술 중 가장 해로운 것이다.

올라잉카 코사씨의 말에 의하면 인퍼뷰레이션은 가장 과격한 여성할레이고 여성성기 주위를 전부 도려낸 후 이를 봉합한다고 한다. 때문에 이 인퍼뷰레이션을 한 여성의 건강은 아주 위험해 질 수 있고 결혼 후 출산 때 더욱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들은 할레를 하지 않으면 결혼을 못 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들은 남편을 얻기 위해서 할레 받기를 더 원한다. 그래서 우리(인권

단체)는 여성할레의 위해성을 남성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외국인에겐 가장 위험한 취재

처음 여성할레를 취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취재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여성할레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는 분위기에서였다. 취재하러 가기 전 자료조사나 섭외를 부탁해도 현지에서 도와주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직접 만나서 설득하며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고 오히려 미리 얘기하다간 소문이 나서 더 위험하다고 조언해 주었다. 할 수 없이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며 직접 현장에 가서 일을 진행하였는데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 자체를 거절했으며 할레의식을 취재할 때에는 반대하는 무리로 인해 위험한 상황까지 가기도 했다. 그외에도 많은 반대와 거부가 있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지속적으로 부탁하고 설득하며 겨우겨우 취재를 해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8-9일을 예정으로 취재를 하던 중 결국 5일 만에 경찰에게 고발을 당해 취재를

이런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할례를 중요한 관습으로 여기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미처 다 마치지도 못하고 떠나야 했다. 누군가가 경찰에게 외국인인 우리의 전통을 나쁜 의도로 취재해서 방송을 만들려 한다고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

현장을 다녀오면서 아프리카에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받아야 하는 할례가 얼마나 인간의 무모한 관습에서 비롯되었나 생각하게 되었다.

원래 할례란 성경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을 말하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징하는 의식이었다. 이 의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할례의식이 아닌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뜻이 되었다.

하지만 이 의식이 어떻게 여성에게 할례란 이름으로 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성적인 욕구를 줄여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논리임에도 수천 년을 유지하며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며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에 안타까울 뿐이었다.

시에라리온에서 만났던 한 선교사님께서서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술사' 때문이라고 했다. 마을마다 있는 주술사를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그 말을 따른다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소사이어티'라는 여성단체 조직의 리더가 이 할례의식을 주도하고 지방에서는 주술사

에 의해 할례날짜와 방법 등이 정해진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무당과 같은 역할인데 이보다 더 많은 일에 관여하고 예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마을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영(靈)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지나치게 무서워하며 그의 말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여성할례라는 끔직한 전통을 남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할례는 분명 문화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특정 지역만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어서 오직 그 지역 사회의 의식변화만이 해법을 낼 수 있다.

정부의 지원도 시급하다. 정부가 나서야 NGO들이 재원에 접근할 수 있고 정치적인 후원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정부는 남성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에도 힘써야 한다. 남성들이 변해야 이 야만적이고 잔인한 의식이 진정으로 멈춰질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이 없다면 여성 할례는 계속 될 것이고 매년 아프리카 내에서 수백만 명의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할례로부터 여성들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될 것이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 15초 간격마다 한명의 여자아이가 할례를 받고 있다.



장유진 PD, (주)미코필름 대표, MBC해외시사 프로그램 W를 4년간 50여편 제작하였으며 'MBC스페셜', EBS '다큐프라임' 등을 제작하였다. 현재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이며 영상기획과 제작을 강의하고 있다.

독일사에서 읽는 한국교회 오phan에서 속죄로 돌아서라

추태화

연재 순서

- 1회: I. 파장의 중심, 한국 교회,
II. 비판의 대상이 된 독일 교회
- 2회: III. 역사 왜곡에 앞장 서다,
IV. 분단을 저지할 수 있었다
- 3회: V. 통일로 속죄하다,
VI.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

선교 120주년을 넘어서는 성숙한 나이의 한국 교회, 하지만 미디어에 비치는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교회의 본질을 심각하게 성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분단과 통일이라는 면에서 자주 비교되어왔던 독일. 그들의 역사에서 교회는 어떠한지 독일사에서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발견해보고자 한다.

파장의 중심, 한국 교회

현재 미디어에 비친 한국 교회, 기독교를 생각하면 어떤 말을 해야할지 난감할 때가 있다. 지난 시간 동안, 아니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오르 내리는 모습을 살펴보면 과연 한국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던 교회인지, 성경적 본질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물론 세간의 비난을 불러온 교회는 전체 한국 교회수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교회는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신앙공동체라는 점 때문에 문제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교회는 어떠한가?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곧바로 교회에 관해 말씀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 18). 현대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의 본질을 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자면,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미디어에 비치는 몇몇 한국 교회의 모습에 할 말을 잊게된다. 상처난 우리 교회에 대하여 회개와 통곡 외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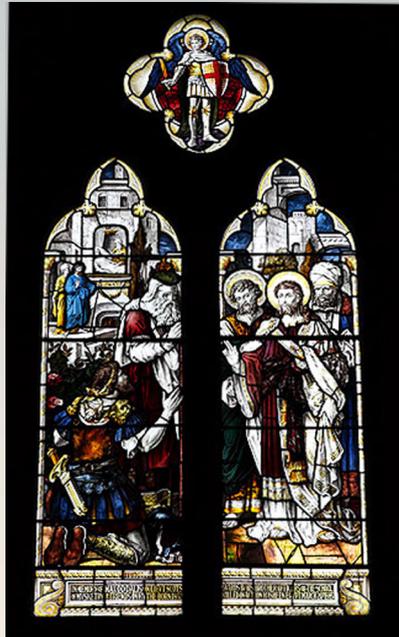
그동안 한국 교회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기총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손봉호 교수는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한 상황”이라며 개탄했다. 한국 교회를 염려하여 펜을 든 여러 저자들은 현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이상성 목사는 『추락하는 한국 교회, 교회의 미래는 한국의 미래다』에서 한국 교회는 ‘문제덩어리 종합선물세트’라고 지목하면서 한국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추락한다’고 지적한다. 황규학 목사는 『한국 교

회, 상식이 운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한국 기독교 안에 최소한의 상식도 사라진 듯 하다고 개탄한다. 김두식 교수는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방향을 거꾸로 잡지 않았는가고 의문을 제시한다.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의 백종국 교수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제 한국교회도 개혁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잠시 잠깐 본질을 잊고 외도한 경우를 보이기도 했다. 이 지면에서는 그 한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 교회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려 한다.

교회의 오판이 얼마나 가공할만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과오를 극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처절한 반성과 회복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아보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대사 속에서 독일 교회가 걸어온 길을 몇 단계로 구분해보자:

- 1) 19세기 중엽 독일 개신교는 현재 한국 교회처럼 사회적 비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 2) 20세기 초반까지 개혁은 지지부진했고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 3) 1930년대 나치 이데올로기와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교회는 그들에게 동조하고 말았다.
- 4) 교회의 오판과 실책으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도록 방관 내지는 협력했고,
- 5) 1945년 연합군에 의해 패전하게 되므로 독일은 동, 서독으로 분단되는 비극을 맞았다.
- 6)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되는 분단 상황에서도 서독 교회는 꾸준히 동독 교회를 지원하므로 통일의 기

반을 닦았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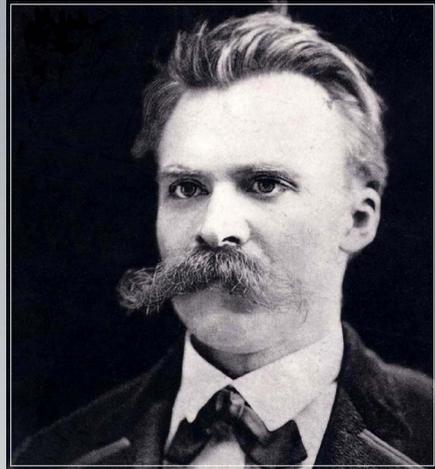
7) 1989년 마침내 동독 교회는 평화기도회를 십 수년 간 지속해온 결과 사회주의 정권을 해체하는데 기여했고, 1990년 독일 통일에 동, 서독 교회는 지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비판의 대상이 된 독일 교회

1850년대 독일 교회는 현대 한국 교회처럼 비판의 중심에 서있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지 340년 가깝도록 성장해온 독일 교회는 당시 세간의 격정거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교회의 우산 아래있던 사제, 교역자들은 종교 귀족이 되어 시민들 위에 군림했고, 예배와 성례를 주도하므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윤리적으로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나 다른 이들에게 도덕을 강조하였고, 자신의 배는 포만여 가득차면서도 시민들의 궁핍한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 중세 시대가 다시 도래한 듯한 형상이었다.

이런 독일 교회에 포문을 여는데 앞장선 사람은 니체(Nietzsche)였다. 그는 문학교수, 철학자, 저술가, 자유사상가 등의 직함을 가지고 왕성한 집필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기독교를 조준했다. 니체는 유럽 문명비판을 통하여 기독교가 어떤 위상에 처해있는지 신랄하게 지적해 나갔다. 『비극의 탄생』은 그의 문명비판을 형상화한 처녀작으로 아폴로와 디오니소스 정신을 비교하면서 합리성을 내세운 아폴로의 승리가 서구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계열의 이성주의가 자유로운 서구 정신을 오염시킨 주범이라고 부르짖는 니체는 결국 기독교도 그 계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전작의 기록보다 한층 더 격렬한 목소리는 『짜라



프리드리히 니체, 1844~1900

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에서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는 산에서 오랜 수행을 마치고 내려온 짜라 투스트라의 깨달음을 통하여 이렇게 외친다. “인간은 초극되어야할 그 무엇이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할 인간의 순진무구한 행동을 저지하는 종교이며, 노예의 도덕이 되어갔다고 비판한다. 그는 나아가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절규했다.

니체의 독설이 우리 시대에 재연된다면 아마도 안티기독교 그룹이 만들어낸 ‘개독교’라는 단어와 유사하지 않을까. 심한 두통과 질병으로 안주하지 못하고 알프스 산간의 요양지를 방황하던 고독한 철학자는 유럽 문명비판의 종결자로 나선다. 그는 이렇게 당시 독일 기독교를 판단했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기독교는 유죄다.”



추태화 독어독문학 박사이며 인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학과장이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문화분과 분과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문화의 미로에서 길을 찾다』, 『태초에 문화가 있었느니라』,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등이 있다.

‘두 왕국 이론’과 교회의 현실 참여

◎ 김중락

연재 순서

- 1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한국장로교회
- 2회: 스코틀랜드의 국민언약과 한국교회
- 3회: ‘두 왕국 이론’과 교회의 현실참여

교회와 통치자의 관계

중세 교황권의 성립 이후부터 기독교 국가의 중요한 딜레마는 교회와 통치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세에는 교황이 각 국의 군주들보다 우위에 있었다. 11세기 후반 교황권과 세속권 사이에 있었던 ‘서임권 투쟁’은 교황의 승리로 끝이 났고, 이후 교황권의 간섭은 단지 교회문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고, 국왕의 승계나 외교 등 비종교적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황에게 도전한 국왕은 여지없이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종교개혁 이후 정반대로 바뀌었다. 종교개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속권력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교 국왕의 교회에 대한 간섭권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16, 17세기 각 국의 왕들은 신민에 대한 통치뿐 아니라 자국 교회에 대한 통제권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theory of divine right kingship)로 무장하고 성직자의 임명에서부터 교리 그리고 예배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부분에 대해 간여하고자 하였다. 사실 그들은 교회정책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 국가의 교회는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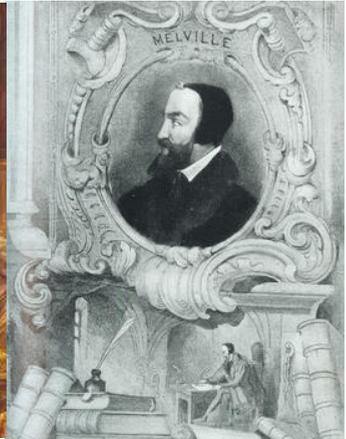
왕의 교회통치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실제로 세속권에 도전할 힘도 없었다. 국왕이 교회에 대해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한 국가는 잉글랜드였다. 잉글랜드 국왕은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supreme head)이었으며, 대주교와 주교 임명권 등 교회에 대해 전권을 지니고 있었다.

멜빌의 두 왕국 이론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세속권력과 교회간의 문제를 독특한 이론과 입장으로 정립하였다. 1560년 장로교로의 종교개혁을 성취한 스코틀랜드 국교회는 존 녹스(John Knox)의 지도로 장로회의 근간을 확립하였고, 1580년대 안드류 멜빌(Andrew Melville)과 그의 조카 제임스 멜빌(James Melville)이 제시한 두 왕국 이론(the two kingdoms theory)을 받아들임으로써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확정지었다. 멜빌의 두 왕국 이론에서 두 왕국이란 국가와 교회를 의미하며, 이 두 왕국은 엄격히 분리되며,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속군주는 국가의 통치를 담당하지만 교회는 그의 통치 영역밖에 존재한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



스코틀랜드 귀족들에게 설교하는 존 녹스



앤드류 멜빌

는 또 다른 왕국이므로 세속권력이 절대로 간섭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임명한 성직자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단지 세속권력은 교회가 외부의 세력에 의해 위기에 처해졌을 때 교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은 세속권력에게 정의와 교회의 보호를 위해 칼을 맡겼지만 교회의 일에 간섭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다. 반면 교회는 세속통치를 위한 기구가 아니며, 단지 교회가 세속정부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국왕의 세속적 실정에 대해 경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두 왕국 이론은 1582년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장이었던 앤드류 멜빌과 당시 국왕 제임스 6세(나중에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됨) 사이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제임스 6세의 총회 간섭에 격분한 앤드류 멜빌은 국왕의 소매를 끌면서 그를 ‘하나님의 어리석은 종이여!’라고 불렀고, 이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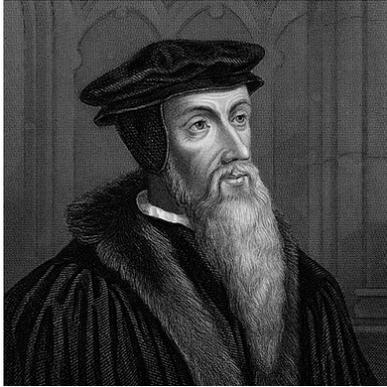
“전하, 이 말을 꼭 해야 하겠습니까. 이 스코틀랜드에는 두 왕과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임스 왕과 국가이며, 다른 하나는 왕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교회입니다. 제임스 6세는 이 왕국에서 신민으로서, 왕도,

귀족도, 머리도 아니며, 단지 한 사람의 구성원에 불과합니다.”

잘 알다시피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한 칼뱅의 주된 싸움 대상은 교회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제네바 시정부였다. 칼뱅은 세속권이 제네바 노회(Consistory)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였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두 왕국 이론의 원조는 칼뱅이었던 것이다. 제네바에서 망명객으로 지낸 스코틀랜드의 개혁가 존 녹스가 칼뱅으로부터 이 사상을 지도 받았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녹스는 그의 제자 앤드류 멜빌에게 이를 전수했을 것이다. 그러나 장로교의 두 왕국이론을 정립한 인물은 앤드류 멜빌과 그의 조카 제임스 멜빌이었다. 따라서 두 왕국 이론은 ‘멜빌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임스 6세와의 갈등

스코틀랜드에서 두 왕국 이론의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진 시기는 1580년대와 1590년대이다. 이 시기 스코틀랜드 교회가 세속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국왕 제임스 6세가 어린 나이로 인해



장 칼뱅



에든버러 대학교 신학부 도서관 앞에 있는 존 녹스 동상

실권을 잡지 못했고, 귀족들의 빈번한 반란으로 정치적 혼란이 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이러한 자유를 조금씩 침해받게 되었다. 이는 성인이 된 제임스는 통치능력을 발휘하였을 뿐 아니라 1603년 잉글랜드의 왕관까지 쓰게 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때문이다. 왕권신수설 신봉자인 제임스는 두 왕국 이론에 기초한 장로교를 극도로 혐오하고 있었다. 잉글랜드 국왕이 된 이후 그는 “군주정과 장로교는 하나님과 악마만큼 잘 어울린다!”고 표현한 적이 있었다. 제임스는 잉글랜드의 왕이 된 후 안드류 멜빌을 런던으로 불러 투옥시킨 것은 장로교에 대한 그의 복수였다.

교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 에라스투스주의

정부가 교회문제에 대해서 교회보다 우위에 있으며, 교회에 간섭할 수 있다는 시각은 에라스투스주의(Erastianism)라고 불린다. 이는 16세기 중반 하이델베르크 대학 의학부 교수였던 토마스 에라스투스(Thomas Erastus, 1524-83)의 사상을 뜻한다. 당시 하이델베르크는 칼뱅주의자였던 프리드리히 3세(Friedrich III)가 팔라틴 선제후가 되면서 제네바와 같이 엄격한 칼뱅주의 규율이 지배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

었다. 이에 에라스투스는 칼뱅파 교회 지도자들의 권력남용을 비판하고, 장로직과 파문권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권한이라고 주장하였다. 에라스투스의 주장은 종교개혁가 베자(Beza)로부터 단호한 반박을 초래하면서 유럽전역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에라스투스는 기독교 국가에서 모든 강제력은 그것이 영적이든 또는 세속적이든 오직 한 곳, 국가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회의 치리권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다. 당시 여러 나라에서 교회에 대한 중요 결정이 의회의 추인을 받아야 했던 것은 이 같은 에라스투스주의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643년 잉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잉글랜드 의회에 의해 소집되었고, 의회의 명령아래 있었다는 것은 이를 가장 잘 보여 사실이다.

요컨대, 장로교의 정치사상은 국가와 교회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두 왕국 이론이며, 이는 교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에에 반해서 에라스투스주의는 교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을 주장하는 사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두 왕국이론의 새로운 측면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교회는 과연 국가에 대해 간섭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영역주권 이론이나 두 왕국 이론에 따르면 정부가 교회 일에 간

섭할 수 없듯이 교회 역시 정부 일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해를 부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세기 한 때 대한민국은 독재정권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적이 있다. 당시 한국교회의 일부는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독재정권에 저항했으나, 대부분 보수교단들은 영역주권 이론을 핑계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장로교의 두 왕국 이론을 제대로 적용한 것인가?

칼뱅과 제네바 노회

칼뱅은 제네바에서 시정부의 노회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는 반면에, 노회는 적극적으로 시정부에 올바른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고 보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였다. 칼뱅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는 그가 제네바에서 신정정치(theocracy)를 했다는 것이다. 신정정치는 종교적 역할을 맡은 사람이 통치를 하거나, 통치자가 되는 경우이다. 즉 제정일치의 사회, 즉 종교적 기구가 통치기구가 되는 경우이다. 칼뱅의 경우 이러한 평가는 신화에 불과하다. 당시 제네바의 시정은 25명의 선출직 행정관들로 구성된 ‘소의회’가 주도하고 있었고, 그들은 입법기능을 가진 ‘200인회’에서 선출되었다. 이 두 기관은 상호 보완적이고, 견제적인 기구였다. 제네바 노회(consistory)는 교회와 관련된 경우에 신자들을 불러 재판할 수 있었고, 수찬정지라는 벌을 내릴 수 있었으나 그 외에는 재제수단이 없었다. 칼뱅은 이 치리법원의 한 구성원이었다. 이처럼 제네바의 시정은 소의회나 200인회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노회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었지만 공

식적으로는 이들의 산하에 있는 기구였다. 치리법원의 결정은 비록 종교적 문제라 해도 시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엄격히 말해 제네바는 에라스투스주의가 어느 정도 작동하는 도시였다. 물론 칼뱅의 영향력은 시정부에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칼뱅의 의사가 거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분명 제네바 노회는 통치기구가 아니었다. 즉 제네바 노회는 교회문제 뿐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는 세속적인 일에도 시정부에 건의(명령이 아니라)를 한 것이다. 이는 노회가 제네바의 통치기구가 되었다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두 왕국 이론은 정부가 교회의 기구가 될 수 없음같이 교회가 정부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정부의 불의에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

교회의 현실참여 방향

더 이상 두 왕국 이론이나 영역주권 이론이 우리의 현실참여에 대한 게으름과 비겁함을 숨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정부를 대신하여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교회는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정부가 되고자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정부를 향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되 교회의 유익이나 권익을 찾고자 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목소리는 항상 억눌린 자들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한국교회는 지난날 두 왕국 이론이나 영역주권 이론의 그릇된 해석 아래 숨었던 비겁함을 회개하고 국가와 사회가 바른 길을 가도록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김중락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이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지부관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기독교문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종교 간의 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활동이다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의 교회와 정치

 백승현


한국에 있어서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 미국 등 오랜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도 독일, 노르웨이처럼 헌법으로 공식 국가종교를 인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국, 프랑스처럼 정치를 세속적 차원의 일로, 종교를 사적 영역의 일로 간주해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강조하는 나라가 있는 등 양태가 다양하다.

한국에서의 정치와 종교, 특히 기독교와의 문제를 유럽 및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중요한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부딪치게 된다. 그것은 서양사회들이 오랫동안 기독교 문명으로 유지돼온 단일종교 사회인데 비해, 한국은 불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다종교사회라는 점이다.

기독교 사회로 천수백년 이상 지속돼 온 서양에서는 18,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자유주의 세속화 세력이 신진세력으로서 전통적 세력인 기독교적 가치와 문화에 대립하며 그것을 허물어뜨리려 해왔다. 이에 반해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는 불교를 비롯한 전통종교 세력이 종교적 기득이익과 영역을 지키려는 기존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120여 년 전 망국과 외세지배로 암울했던 시기에 이 땅에 새 빛과 소망을 가져다준 기독교는 가장 늦게 뿌리내린 종교로서 신진세력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특히 기독교는 일제시대나 건국 이후 지금까지 줄곧 중요한 역사적 고비마다 정치사회적 참여를 선도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역동성을 주도하는 데 큰 역할과 기여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비롯한 한국의 기존 전통종

교 세력들은 교회의 성장과 세력 신장,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의 주도적인 정치적 역할에 대해 크게 반발하거나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외국의 전문가들조차 다종교사회이면서도 종교 종파 간 갈등과 분쟁이 대두되지 않는 한국사회의 모습에 경탄할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후부터 불교계 일각에서 기독교회에 대해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또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로 여기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직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누려오던 기득이익과 영역이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역할 증대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뒤늦게 발동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한국교회와 교인의 정치적 역할은 유신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당시인 1970~80년대에 특히 더욱 강했다. 그럼 교회의 정치적 역할이 컸던 과거엔 불교계 등의 반발이 거의 없었는데, 왜 최근에는 반발과 마찰이 심해진 것일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 기독교회의 정치적 참여가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행동 위주로 이뤄짐으로써 주로 핍박 받는 일이었던데 반해,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에는 마치 교회가 집권세력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점이 과거와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이다.

현 정부 출범 후 '고소영' 내각이라 불릴 만큼 정부 고위직을 기독교인, 특히 특정교회 출신이 맡는 경우가



적잖게 있는데다, 일부 인사들은 편협하게 들릴 수 있는 말로 설화(舌禍)를 일으켰고, 또 일부 기독교인들은 ‘사찰 땅밟기’같은 무모한 행동을 함으로써 타 종교의 반발과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면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교회와 정치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인들은 다른 종교와 종교인들에 대해, 그리고 교회 밖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와 교인이 소수세력이자 사회적으로도 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을 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타 종교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갖지 않았다. 삼일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33인의 종교별 분포 중 기독교인 비율은 전체 인구 중의 기독교인 비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다.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불교, 천도교 등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어깨를 맞대고 속의할 만큼 타 종교인들과 어울려 대사를 도모하고 잘 지낼 줄 알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가 소수였을 때, 오히려 선배교인들은 타 종교인들과 더불어 지내는 것을 꺼리지 않았을 만큼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 상당수가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적인 면에서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할 만큼 한국교회는 정치사회적으

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 교인들 사이에, 교회는 선이고 타 종교나 세상은 악이라고 하는 단순 이분법적 사고가 은연 중 확산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단선적 사고가 교회 내부적으로 교인들의 단결과 유대,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기도 하겠지만, 타 종교와 세상에 대해서는 적대적 태도와 경직된 자세를 보이도록 만든다.

이 땅에서 기독교의 힘이 훨씬 더 크고 강해진 오늘날 교인들이 타 종교와 세상을 적대적으로 대하면서부터 기독교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위축, 축소되었다.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타 종교인들과 더불어 원만하게 대화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보여줬던 선배 교인들의 열린 자세, 관용의 태도를 배워 익힐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타 종교인들도 언젠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오직 주님만이 아실뿐.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라는 믿음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다른 종교 전통에 속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 간의 대화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활동이다.”(리처드 마우, 『무례한 기독교』 pp.118-119.)



백승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BA),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MA),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Ph.D.)에서 수학하였다. 새문안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고,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학교법인 삼곡학원(삼곡중고교, 장안여중)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정치분과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리터러시 교육과 교회교육

교회를 지속시킬 수 있는 인재양성의 힘을 키우자

◎ 임춘택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리터러시(literacy)란 사전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사고하기를 포함하여)’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읽기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 피사(PISA)의 평가영역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데 그만큼 리터러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는 물론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문자텍스트에 관한 리터러시 외에도 문자, 이미지, 소리가 융합된 다중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학문적으로 리터러시의 의미와 쓰임은 다양하다. 단지 개인의 읽고 쓰는 능력에 관한 것을 넘어서 읽고 쓰기 행위 주체를 분석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한다. 예를 들어, 다중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미디어 활용과 생산 능력 향상 방법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미디어 생산과 소비 환경에 대한 교육, 미디어 생산 주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미디어에 대한 메타적 기능을 아우른다.

문자만으로 구성된 단일 미디어(예, 글)든 다중미디어(예, 영상물)든 기호학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볼 때, ‘현상 및 대상 - 해석 및 수용 - 소통’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지식 습득, 가치관 형성, 자존감 형성 등 성

장 중에 있는 어린 아이부터 대학생 시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배움의 대상이다.

리터러시가 중요한 이유

리터러시가 시대적·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이론의 여지없이, 21세기는 지식 중심의 사회활동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식은 육체적 노동과 기술보다 우선시 되는 노동 수단이다. 지식은 정적인 상태로 있지 않고 운동력을 요구한다. 지식에 관한 교육, 창출, 유통, 재구성은 사회를 움직이고 부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경제활동들이다. 읽고 쓰는 지식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창의적인 사고와 그 결과물이 현실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인식의 전환, 경제적 이익, 힘의 이동 등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다.

문제는 서구권의 학교 교육과 달리 읽기와 쓰기 행위를 본격적으로 대학에 와서야 시작하는 한국의 경우, 읽기와 쓰기 능력에 있어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객관식과 단답형 수능시험의 문제, 읽고 쓰는 능력과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

가와 그 평가에 대한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를 주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대학에서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했는가는 ‘사고와 표현’ 관련 강의 개설과 센터설립 등 여러 가지적인 정황들을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보이지만 중등학교에서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수 없는 입시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대학 신입생부터 마주친 읽기쓰기 교육은 학생 입장에서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리터러시 교육은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 모두 에너지가 많이 소비하게 하지만, 매체 환경의 변화로 문자를 읽기보다는 영상을 보는 시대에 고전 읽기, 명저 읽기, 토론, 글쓰기와 같은 리터러시 교육은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 보여주는 방식의 비선형적 정보 소통 구조에서 독서, 사고, 작문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교회와 리터러시

그렇다면 교회에서 리터러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상과 함께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야 하는 청(소)년 교육의 현주소는 앞서 언급한 학교 교육보다 나은가? 성경을 기반으로 한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세속적 논리로 여러 겹 쌓여진 학문적 구조를 간파하고 무력화시킬 인재 양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주일학교 교육과 활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회의적이게도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리터러시 교육보다는 일회성 이벤트 중심 혹은 물량적 성장에 여전히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 보인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에게 쫓겨날 이후의 삶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지혜를 발휘한다. 교회가 시대적 변화에 끌려 다니지 않으면서 구원 사역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이벤트나 교회 건축이 아닌 당장은 그 결과가 비가시적이지만 교회를 지속시킬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눈을 돌려야 한다. 청지기가 자기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지속 가능한 지혜 (a sustainable wisdom)’를 발휘했던 것처럼 교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리터러시 교육에 있다.

한국 교회에서 리터러시 교육은 분명 교회 내외적 상황과 한국의 학문적 토대를 고려했을 때 세태의 흐름에 어울리거나 순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장 흥미를 끌지 못할 수 있다. 교회에서 대중적인 지지를 얻거나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리터러시 교육을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받은 교회 학교 학생들은 강력한 지식의 소유자이자 세상의 높아진 지식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지식 중심 사회를 선도할 중보자적인 위치에 설 수 있다.

청소년기 리터러시 학습방법 제안

청소년부터 대학생 시기 정도에 성경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리터러시 교육 및 교수-학습 방법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다.

- 읽기자료의 내용에 대한 파악 및 분석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의 비평 연습
- 대중 매체의 정보(뉴스 보도, 칼럼, 논평, 전문 지식 등)와 사회 문화 현상에 관한 서적을 읽고 분석하여 성경적 관점에서 비평 또는 해결책 제시
- 성경, 강해서, 기독교 세계관 서적 등을 위시하여 철학, 문학, 사회학, 과학, 경제, 예술 등 학문의 전 분야

를 장기적으로 두루 섭렵하는 독서와 토론 교육

- 현상과 (사회)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
- 비판적인 사고와 글쓰기에 있어 논점을 정확히 유지하는 연습
- 문제의 해결책 제시에 있어 단순히 성경 구절 인용이나 '예수 믿으세요, 해결됩니다.' 라는 궁극적인 목표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제 상황에 맞는 기독교적인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교육
- 사회 문제에 대해 제 삼 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주님의 성품이 묻어난 안타까운 마음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 '성경적이지 못한' 특정 지식과 학문체계가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음을 각 학문의 전문적 지식을 사용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증명, 변론하는 과정과 방법 교육
- 문제 상황과 이와 연관된 전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제시 방법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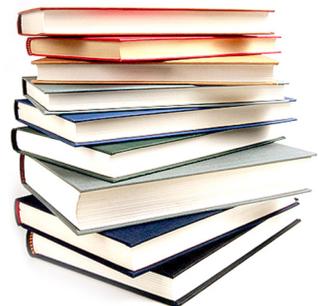
기독교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리터러시 교육

우리의 가까운 주변, 사회,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사람들의 의식 상태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분석하고 성경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리터러시 교육이 단계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교회교육이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읽기쓰기 교육을 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 주일학교 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 성경 알기를 위한 주일학교 교육 옆에

세상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분별하도록 돕는 공부가 별도로 진행되거나 기존의 성경 공부의 전략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다. 입시공부에 대한 시간적 부담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들여서 교육을 진행한다던 리터러시에 있어서만큼은 학교 교육에 앞서서 선도자적 위치를 교회가 점하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리터러시 교육은 이론과 설명 위주의 접근이 아닌 수혜자 중심의 현실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보완과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특정 주제, 대상,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성경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귀납법적 접근방식의 교수학습과 교재 개발이 중요하다. 하지만 단일 교회에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한 소명 의식을 가진 기독교 세계관 학문 연구자와 교육자가 맡아서 해야 한다.

교회와 국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변해야 한다. 교회와 교단 중심의 행사나 외형적 성장에 지나쳤던 면을 재고하고 디지털 미디어 세계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교회를 지속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리터러시 교육에 눈을 떠야한다.



임춘택 한신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B.A) 서울대학교 독어교육학과 대학원에서 독일어권 창의적 글쓰기 이론과 교육에 관한 연구로 교육학박사학위(Ph.D. in Education)를 취득하였다. 현재,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시사문화글쓰기 담당강사, 한신대, 서울대 등에서 글쓰기, 문학, 독일어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교회란 무엇인가? (2)

이승구



레슬리 뉴비긴 저, 홍병룡 옮김, 서울: MP, 2010

레슬리 뉴비긴은 상당 부분에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를 절충적으로 다루려고 애쓴다: “교회는 천주교의 주장이나 개신교의 주장 중 어느 하나라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115). 더 나아가서 그는 에큐메니컬 논의에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오순절 운동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며, 그 셋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책의 기본적 주제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그는 결국 개신교와 천주교, 오순절 교회, 그리고 자신이 잘 몰라서 다루지 않은 동방 정교회까지를 포괄하는 교회 연합 운동과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그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논쟁은 “오순절 운동에 의해 보완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자신의 입장으로 제시한다(113).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에큐메니컬 대화가 적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오순절파의 기여가 필요하다”(130, 131). 물론 그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그들(오순절파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에큐메니컬 운동에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 주는 표지가 있음을 인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한다(130).

뉴비긴은 WCC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관이 다양하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그 자체가 일종의 교회론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24). 그러면서 그는 WCC가 연방 형태의 연합을 이루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토로한다. 현재의 WCC는 “분열에서 연합에 이르는 과도기의 한 단계일 뿐”이라는 것이다(24). 이런 점에서 그는 오늘날 WCC가 교회의 실질적 하나 됨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오늘날 WCC 인사들보다 훨씬 솔직하다. 그는 WCC가 “연방 연합의 상태에 안주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뉴비긴은 개신교와 천주교와 오순절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각자의 장점을 말하면서 각자를 비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왜곡이 발생한다.

고 주장하는 것이다(28). 그는 궁극적으로는 마치 남인도에서 여러 교단이 하나가 된 것과 같이 하나가 되기를 지향하는 것이다. 물론 그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 상태에서 이 일이 분명히 될 것을 원하고 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전에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그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교회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지는 우리가 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30), 후에 그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의 복음>에서 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불가지론의 복선이 될만한 것을 깔아 놓고 있다.

그는 가시적 교회를 매우 중요시하므로 전통적 종교 개혁신학이 말하는 비가시적 교회 개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언급한다. 그런 교회관은 교회 회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각자가 내키는 대로 자격을 정할 수” 있고, 결국 우리 이상에 따른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33). 그러나 이점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선택된 사람들로서의 불가지적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에 가시적 교회로 드러나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개혁자들의 의도와 용어 사용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뉴비긴은 개신교와 천주교와 오순절 교회를 하나로 묶어 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각자의 장점을 말하면서 각자를 비판하는 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왜곡이 발생한다. 그는 개신교는 역동적 교회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세대 하나를 묶는 교회의 연속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59, 70), 과연 진정한 개신교도가 그의 이런 말에 동의할 수 있으려는지, 특히 루터나 칼빈이 과연 그에게 동의할 수 있으려는지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서서 그가 비판적으로 언급한 불

가시적 교회 개념이 이런 교회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생각되고 사용된 개념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그는 아마도 바르트와 그를 따르는 이들인 신정통주의적 독일 개신교도들의 논의와 생각에 사로 잡혀서 그들이 왜곡하고 있는 루터나 칼빈 등의 개혁자들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점은 특히 68쪽의 진술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과연 성경적 개신교도가 말씀만을 중요시해서 지적인 것만을 강조하여 문서로 작성된 신학적 진술이 교회를 좌우하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려는지(62) 강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과연 신실한 개신교도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만”이라고 응답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그 친교의 맥락을 도외시할” 수(63) 있겠는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분과 그리고 다른 신자와 하나가 되는 일은 지적인 동의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것이다”는 말은(63) 뉴비긴이 시사하는 대로 개신교도들이 무시하는 말이기 보다는 개신교도들 자신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루터의 진술에 “가시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통일성을 주장할 여지도 아예 남겨 놓지 않는다”는 말에(64, 이로부터 67까지를 보라) 동의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려는지 모르겠다.

또한 뉴비긴은 성경이 무오한 계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명제적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예수님과 그의 관계성을 중요시 하는 입장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74-75). 그리하여 그는 한편으로는 성경과 예수님을, 또 한편으로는 성경과 성령님의 사역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시사를 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 보라: “주님은 어떤 교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the household of God)이다.

리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를 믿는 자들을 불러 모임을 중성화한 것이 아니다. ... 그 분은 그들에게 어떤 공인된 신조도 주시지 않으셨다. 그 공동체에 소속 여부는 어떤 공식적 신학에 대한 찬성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었다(91).”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영입된다”고 말하는 (73, 82) 뉴비긴의 의도는 무엇인지 모호하기는 하다. 한 곳에서는 가시적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세례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표현된다”고(82) 상당히 이해할만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세례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세례로 그 사실을 표하고 인치는 것이라는 종교 개혁자들의 이해를 상당히 무시하거나 과녁치 않고, 물로 받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다는 천주교 개념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특히 94).

또 때로는 바르트주의적 입장에 서서 전통적 교리를 재해석하는 레슬리 뉴비긴의 모습도 보게 된다. 선택에 대한 그의 다음 같은 진술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바로 그 예수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 우리가 그분의 몸에 영입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각각 개별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선택된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동기는 바로 살도록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123). 여기서 바르트에게서와 같이 선택이라는 전통적 용어는 보존되었지만 개별적 선택은 사라지고 선택의 시점도 불명료하게 되어 성경과 개혁신학이 말하는 선택의 의미는 다 증발해 버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레슬리 뉴비긴이 “시간은 하나님의 노동의 양태이고, 영원은 그분의 안식의 양태다. 그 둘 다 똑같이 실재한다. -(간)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종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을 취하신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할 때(147) 결국 그것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될까봐,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를 무위로 하는 것이 될까 봐 못내 불안하다. 비슷한 불안이 그가 “아가페와 에로스를 절대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한 마디로 잘못이다”고 말할 때도(158)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레슬리 뉴비긴은 1953년에도 WCC적인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개신교, 천주교, 오순절 교회를 하나로 묶고자하는 WCC적인 에큐메니컬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때로 바르트에 대한(칸)비판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곳에서 바르트 신학적 동기를 가진 신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WCC의 초기 중요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비설 후프트와 함께 바르트주의적 에큐메니컬 신학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레슬리 뉴비긴이 자신의 이런 기본적 생각(agenda)을 버려 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앞서 말한 긍정적 기여를 중심으로 그가 말하고 논의하고 있는 바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the household of God)이다. 뉴비긴의 WCC에 대한 기본적 아젠다 때문에 이런 중요한 기여가 무시되기 쉽다는 점이 매우 아쉬울 뿐이다. 그의 기본적 아젠다가 강하게 언급되면 언급될수록 그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언급하는 그 범위가 매우 크게 되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과연 하나님의 가족인가를 묻게끔 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성경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 충실해서 레슬리 뉴비긴을 포함한 WCC적 에큐메니컬 운동을 극복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님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사역에 충실한 참된 성경적 에큐메니즘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된다.

레슬리 뉴비긴이 잘 지적하는 대로 “선교의 맥락에 계속 충실하지 않으며 에큐메니컬 운동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21). 이것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국제 선교협의회(IMC,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와 세계교회 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를 통합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이 출간 될 때인 1953년에 두 기관이 아직 나뉘어져 있었으나, 그의 이 책에서의 주장과 노력의 결과로 1961년 WCC 제 2차 총회라고 할 수 있는 뉴델리 회의(1961)에서 통합되었으나 그 결과 과연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그대로 믿고,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대로 살며, 그렇게 성경적 복음에 충실한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한 성령님 안에서의 연합에 의존한 연합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이 성경에 충실하지 않은 교회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고, 성경적 복음을 손상하고 있는 교회들과도 같이 있으려 하는 것은 진정한 선교적 맥락에 충실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나는 그가 지금도 “WCC의 회원이 되는 것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연합의 길이며 이 길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26) 주장하려는지 의문이 강하게 든다. 그런 의미에서 1953년의 책을 지금에서야 우리말로 소개하는 이 책의 한국어 번역이 혹시 잘못된 에큐메니컬 운동(WCC적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원하는 결과를 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성경적 에큐메니컬 운동에 큰 손상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과 이 책의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읽어 가야 할 것이다.



이승구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 세인트앤드류스대학교대학원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고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을 거쳐 현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과 부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요리문답강해』, 『21세기 개혁신학』 등이 있다.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기독교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제5회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리핀(Duane Litfin)휘튼대학교 전 총장을 비롯하여 커클란(Rober F. Cochran), 이나가키(Hisakazu Inagaki), 브래들리(Walter L. Bradley), 미첼(Jolyon Mitchell) 교수와 세계관동역회의 한정화(한양대), 추태화(안양대) 교수가 주강의를 진행하였으며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참석하여 교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Duane Litfin



Rober Cochran



Hisakazu Inagaki



Walter L. Bradley



Jolyon Mitchell



한정화



추태화



전체기념사진

지적설계연구회 브래들리 교수 초청 강연회



Walter L. Bradley

지난 6월 24일(금) 오후 7시 서강대학교 리치과학관(R관) 404호에서 “신의 존재를 지지하는 과학적인 증거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월터 브래들리 교수 초청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교수는 베일러(Baylor)대학교 석좌교수이며, 미국 기독교 학술단체 ASA(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생명의 진화 기원에 대한 학술적인 비판을 시도하여 지적설계운동의 설립과 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영상캠프 및 부산지역 세계관 특강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5기 영상캠프가 7월 4일부터 8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엘레브 선교센터에서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부산지역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관 특강을 김성수(고신대 총장), 전광식(고신대), 김승욱(중앙대) 교수가 진행합니다. 본 행사는 고신대학교, 부산극동방송, 수영로교회 엘레브 센터가 후원하였습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보고(2011.5월)

개인후원금_단위(원)

1만5천 김선화, 임고운, 최동원 2만 강대훈, 권민규, 김옥태, 김용식, 노용환, 박영혜, 배은경, 변우진, 양백, 우시정, 원호영, 이대환, 이명희 3만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승남, 김종호, 김중락, 박문식, 박상진, 박신현, 오의석, 우병훈, 윤석찬,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이현욱, 정동섭, 정은애, 추태화, 황정진, 장수영 4만 황혜정, 이현정 5만 김성락, 김시호, 송인규, 신국원,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김미경, 김준호, 박한, 손병덕, 윤일, 이정락, 조무성, 차재승 10만 강은주, 김원수, 민현홍, 김승태, 김의원, 박상은, 윤완철, 전광식 12만 전요섭, 이청무

15만 손봉호, 양승훈 50만 강상우 100만 김승욱, 한정화 200만 김승태 300만 조성표

합계 11,131,000원

기관후원금_단위(원)

1만 빛과소금교회 3만 두레교회 5만 개봉교회, 군산성광교회, 다운공동체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교회 10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명성교회, 산정현교회, 새로남교회, 샘물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은혜로교회, 자운교회, 참빛교회, 호산나교회 20만 국군중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500만 엘비전

합계: 8,490,000원

* 후원보고는 정회원 회비 이외의 후원금 내역을 보고합니다.

정회원 및 구독회원 회비납부 내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관동역회의 월간지 월드뷰(worldview)는 정회원들에게만 발송합니다.

회원가입안내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소는 2009년 5월에 통합하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거듭났습니다. 기독교적 학문 연구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뜻이 있으신 모든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일정의 회비 납부자)에게 드리는 혜택

1. 월간 세계관 전문지 <Worldview>와 학술지<신앙과 학문>을 보내 드립니다.
2. 석사 이상 회원분들은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원으로 자동등록됩니다.
3. 홈페이지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각종 학회 및 세미나 발표논문과 칼럼,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4.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1회 CUP 출판사의 신간을 받아보실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6. 학문 연구에 뜻이 있으신분은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7. 회비(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비 1 구좌 : 5,000원

일반회원 : 2구좌(1만원) 이상

학생회원 : 1구좌(5천원) 이상

임원 : 6구좌 (3만원) 이상

이사 : 20구좌(10만원) 이상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